

“밤에 만나는 봄의 낭만”...강진 ‘불금불파’ 오늘 개장

월별 테마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병영 캠프닉’ 금·토·일 확대 편성
어쿠스틱·EDM DJ 공연 등 다채
주인 참여형 장터 등 먹거리 제공

강진군은 지역 대표 야간문화 프로그램인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를 새단장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권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3일 2026년 상반기 강진 불금불파 행사를 공식 개장하고 다채로운 야간 문화콘텐츠를 앞세워 봄철 관광객 맞이에 돌입한다.

불금불파는 감각적인 공연과 체험, 지역 먹거리와 휴식이 어우러진 강진만의 독자적인 야간 관광 브랜드다.

스쳐가는 관광을 넘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머무며 즐기는 체류형 콘텐츠를 통해 야간 시간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올해 상반기 행사는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계절의 감성과 월별 테마를 살린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꾸러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달에 한번 진행되는 ‘스페셜 원데이·원장르’ 특화 무대로, 하나의 장르가 가진 매력을 깊이 있게 조명해 관객에게 높은 몰입감을 선사한다는 구상이다.

첫 특화 무대는 오는 11일 ‘봄의 낭만’을 주제로 한 어쿠스틱 공연으로 장식되며, 개장일인 3일에는 특별가수 ‘씨이버거’가 무대에 올라 축제 초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축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화려한 EDM DJ 공연과 인기 대중가수들의 무대 역시 세대별 취향을 반영해 다채롭게 이어져 불금불파만의 또



강진군이 월별 테마를 살린 야간 문화 프로그램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를 새롭게 단장하며 지역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불금불파 현장 모습. <강진군 제공>

거운 열기를 더할 방침이다. 가족과 연인, 친구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류형 인프라도 대폭 확대 운영된다. 큰 호응을 얻었던 ‘돌아온 병영 캠프닉(텐트촌)’은 기존 주말(토·

일요일) 운영에서 금·토요일과 토·일요일로 확대 편성됐다.

하멜텐트촌 역시 금·토요일 일정으로 가동되며, 관련 예약과 홍보는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행사장 일원에서는 할머니장터, 농부장터, 아트마켓, 병영 상생플랫폼 등 다채로운 주민 참여형 장터가 열려 방문객에게 풍성한 먹거리 등을 제공하고, 지역민이 직접 주도하는 장터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이 강진의 일상과 정취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행사장 주변의 전라병영성과 하멜기념관 등을 둘러보는 ‘한골목길 자연산책’ 프로그램을 병행해 방문객들이 병영면 일원의 역사와 문화 자원까지 폭넓게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동선을 구축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불금불파는 단순한 야간 행사를 넘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람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핵심 문화관광 자원”이라며 “계절별 테마 공연과 체류형 프로그램,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더욱 매력적이고 완성도 높은 강진의 밤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나주 천연염색박물관, 전통 예술 미학 재해석

오는 25일까지 ‘정중동’ 기획전

한국화·목공예 등 50여점 전시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이 한국 전통 예술에 내재된 절제와 여백의 미학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융합 전시를 선보인다.

2일 나주시천연염색재단 산하 한국천연염색 박물관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박물관 내 기획전실에서 ‘한국의 美-정중동(靜中動)’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고요 속의 움직임’을 뜻하는 정중동을 주제로 기획했으며, 절제와 여백, 호흡

과 순환을 중시하는 한국적 미감의 본질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했다.

전시는 한국화·윤회도자화·천연염색·낙죽·목공예 등 4개 장르를 융합해 자연과 사유, 색과 물성, 순환의 개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50여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에는 은산 강금복(한국화), 다음(윤회도자화), 채정 최희영(천연염색), 윤담 최명철(낙죽목공예)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작가 4인이 참여해 자연과 인간, 물성과 정신이 어우러진 한국 예술의 깊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낸다.

특히 천연염색 작품은 자연에서 얻은 색이 스

며드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흐름을 표현하고 낙죽목공예는 불과 나무가 어우러진 조형미를 통해 한국적 미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전통 예술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되돌아보고 일상 속 미적 감수성을 확장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경렬 한국천연염색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한국 전통 예술이 지닌 고유한 아름다운 속생명과 움직임을 조망하는 자리”라며 “관객들이 일상 속 미적 감수성을 확장하고 한국 미학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정중환 기자



지난해 열린 '2025 보배섬 유채꽃 축제' 현장에서 시민들이 만개한 꽃을 구경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2026 보배섬 유채꽃 축제’ 개최

9-12일 관매도 단지 일원서

걷기대회·서화체험 등 다채

진도군이 지역 대표 관광지인 관매도의 대규모 유채꽃 단지를 배경으로 봄꽃 축제를 개최한다.

2일 진도군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조도면 관매도 일원에서 ‘2026 보배섬 유채꽃 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약 7만5천평 규모로 조성된 유채꽃 단지를 중심으로 펼쳐지며, 오는 9일 오후 2시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진도군립민속예술단과 국립남도국악원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이어진다.

행사장 곳곳에는 유채꽃 길 걷기대회, 찾아가는 서화 체험 등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관광객의 이동 편의 개선을 통해 축제장과 관매항을 오가는 셔틀버스와 행사장 내 미니 기차

는 1인당 1천원의 통합이용권으로 이용 가능하며, 이달부터 관매도 직항 운항이 시작된 가운데 축제 기간에는 여객선을 1항차 증편해 하루 총 6회 왕복 운항한다.

군은 축제가 끝난 후에도 유채꽃 개화 시기에 맞춰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을 ‘나들이 기간’으로 정하고 포토존과 편의시설을 연중 운영할 방침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청정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황금빛 유채꽃 향연이 방문객들에게 봄날의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며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질 없이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무안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가동

올해부터 4년간 맞춤형 징수 활동

무안군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담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2일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4년간 기간에 근로자를 활용한 ‘지방세입 체납

관리단’을 구성해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선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안내와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는다.

군은 이달 채용 공고를 거쳐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인력과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병행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징수 부담을 완화하는 균형적 관리에도 힘 쓸 방침이다.

김병중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체납관리단 운영이 세입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성호 기자

서해해경청-주광주 중국총영사관, 공조 ‘협력’

해상 치안 안전 확보 공동 대응기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주광주 중국총영사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서해 해역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나섰다.

2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청사에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구정지 총영사 일행을 접견하고, 양 기관 간 공조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접견에서는 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중국어선 관련 사건·사고 대응을 비롯해 구조 협력,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해상 치안과 안전 확보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서해해경청은 최근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에 대한 담보금



액을 최대 2억원으로 확대했으며, 향후 무허가 선박에 대해서는 최대 15억원까지 상향을 추진 중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측에 자국 어선이 관련 법규를 준수해 조업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백학선 청장은 “서해 해역은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주광주 중국총영사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해양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완도군 ‘해신 장보고 지구’ 인프라 정비

도 노후관광지 재생 사업 선정

완도군이 과거 명성을 떨쳤던 사극 촬영장 일원의 낡은 관광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해양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2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 주관 ‘2026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 공모에 해신 장보고 지구(청해포구 촬영장)가 최종 선정돼 사업비 18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세부 계획 수립을 거쳐 오는 2028년까지 추진되며, 군은 확보한 예산을 투입해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노후 경관 개

선과 쉼터 조성, 관광 동선 정비 등을 진행해 방문객 수용 태세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인 청해포구 촬영장은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활동 무대인 청해진을 모티브로 지난 2004년 조성됐다. 드라마 ‘해신’과 영화 ‘명량’ 등 다수의 대작이 촬영됐으며 2007년 정식 관광지로 지정된 바 있다.

바다를 조망하는 개방형 구조에 완도수목원, 국도 77호선 해안 도로 등 주요 명소와 연계되어, 이번 재생 사업을 기점으로 관광객 유입 증대와 추가 촬영 유치 등 지역 관광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완도=윤보현 기자



신안군, ‘AI 시대 맞춤형’ 부모 교육

10월까지 학부모 90명 대상

신안군은 2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학부모와 보호자 90명을 대상으로 ‘AI 시대,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를 주제로 부모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페이크나 사이버 도박 등 최근 다각화되고 있는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참여자들은 AI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자녀 스스로 매체를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돕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배운다.

신안군 관계자는 “AI 시대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부모와 자녀 간 깊은 소통을 이끌고,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튼튼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양홍 기자